Seoul Natonal University
News Letter : School of Econonic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School of Econonics SNU
제008 호 발간일 :2003 년 11 월 12 일

동대문시장으로부터의 메세지

이영훈(경제학부 교수)

동대문시장에 관한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찾았다. 널리 알려진 대로 동대문시장은 중저가의 의류패션시장으로서는 세계 제일의 규모와 경쟁력을 자랑한다. 27개 상가에 약 3만여 점포가 입주해 있는 이 시장의 하루 유동인구는 20~30만명, 연간 매출은 약 10조원, 보따리무역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연간 수출은 20~30억불에나 달한다. 이 시장의 최대의 경쟁력은 디자인-봉제-도매-소매와 연관된 일체의 인적?물적 자원이 시장 안이나 가까운 곳에 집적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산업지리적 효과 덕분에 이 시장의 생산 속도와 비용은 세계의 다른 어느 곳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저렴하다. 가령 1999년의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도쿄의 상인이 동대문에 도착하여 디자인을 수배, 주문한지 이틀도 못되어 그 사람의 상점에 그 의류가 진열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경제위기가 한창 진행 중이었지만, 동대문은 이 같은 경쟁력에 힘입어 번영을 누렸다. 영광스럽게 '동대문밸리'라는 별명이 붙여진 것도 그 언저리이며, 그렇게 동대문은 위기의 한국경제가 모색할 대안적 국가경쟁력의 한 형태로 높이 평가되었다. 학계의 관심도 적지 않아 지난 2~3년간 동대문시장에 관한 논문이 꽤나 쏟아져 나왔는데, 그 가운데는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거래비용이론에 입각하여 동대문의 경쟁력을 훌륭히 분석한 책도 있다.

그러했건만 오랜만에 찾은 사이트마다 이구동성으로 비관적 전망이 가득하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우선 중국 때문이다. 1/10에 불과한 저임금에 유인되어 봉제라인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옮겨가 동대문이 자랑하던 신속일관체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디자인 부문에서라도 비교우위를 발휘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터인데, 그것마저 중국 패션산업의 성장으로 어려운 모양이다. 가령 올해 동대문의 보따리 수출은 10억불 정도로 작년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은 패션에 관해서는 동대문 스스로가 오랫동안 앓아온 고질병이 있다. 다른 상인이 어렵사리 개발한 디자인을 무단 복제하는 이른바 '짝퉁'이란 폐습이 바로 그것이다. 요사이는 동대문을 찾는 중국 상인들조차 이 '짝퉁'에 가담하여 한국시장으로 역수출까지 하는 형편이라고 한다. 이외에 동대문 상인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어느 듯 동대문 전체가 부동산시장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조금 장사가 된다는 소문이 나니까 부동산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개발에 나서 건축 중이거나 신축 예정의 상가가 무려 15개나 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상인들의 주장으로는 현재의 27개 상가와 3만여 점포만으로도 이미 과잉이라는 것이다. 그건 앞으로의 일이지만, 현재 영업 중인 상가에서는 섬뜩하게도 '피값'이란 관행이 상인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여러 사이트에서 고발되고 있다. 입점 상인들이 기한이 만료되어 상가 소유주와 재계약을 맺을 때 상가운영회에 자리값으로 지불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데, 보통 운영회라는 것이 조직폭력배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 거절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렇게 동대문의 경쟁력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이 높은 임대료와 '피값'으로 부동산업자와 조폭들의 소득으로 이전되고 있음이 사실이라면, 그 시장에 장차 별 볼일이 없어지게 되는 정도는 짐작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필자가 보기에 위와 같은 동대문시장의 경쟁력과 현재의 어려움은 철저히 역사적이다. 역사적이라 함은 시장이 만들어진 지 백년이나 오래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의 상인들이 입각하고 있는 행동 규범과 관행이 시장 내에서 오랜 기간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들이어서 좀처럼 변하기 힘들며, 이에 특정한 조건에서 상인들이 어떻게 반응할 지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가령 동대문의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강한 결속력의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치자. '짝퉁'의 폐습도 자율적으로 규제될 수 있을 터이다. 동대문구의 지방의회를 장악하기도 여반장이며, 그렇다면 상가가 무질서하게 개발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터이다. '피값'을, 경제학적으로 정확히 말해 초과이윤의 차액지대를 없애기는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것을 누가 거두어 어떻게 쓰는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만약 상인들의 민주적 공동체가 그것을 수취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지만 동대문의 상인들은 그러한 공동체를 구성할 적극적인 의지도 없으며 객관적인 여건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디자인-봉제-도매-소매의 종적인 네트워크에는 필사적으로 신용을 지키고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만, 가령 같은 도매상끼리의 횡적인 네트워크의 구축과 유지에는 무척이나 서툴다.

왜 그런가? 그에 대한 해답도 여러 사이트를 뒤적이다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안티시장이란 사이트가 전하는 지난 11월 4일에 발표된 서울상공회의소의 한 조사결과는 서울의 상인들이 매우 건전한 가치관의 소지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74%가 사업의 성공 요인을 '성실과 신용'으로 꼽고 있다. 그런데 자신의 직업을 자녀들에게 물려 줄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압도적 다수인 83%가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다. 말하자면 천직으로서 직업의식은 여전히 희박한 셈이다. 다시 말해 단골들과의 종적인 네트워크에는 최대한 '성실과 신용'의 의무를 다하지만 동업자끼리의 횡적인 네트워크에는 그 멤버쉽이 그리 소중한 것도 못되고, 조만간 소란스럽고 살풍경한 시장으로부터 벗어날 작정이기 때문에 그리 큰 애착은 느끼지 못하고 있음이 오늘날 상인들의 기본 행태인 것이다. 필자는 이전에 우리나라의 경제사에서 무슨 연유로 5일마다 열리는 농촌장시가 1960년대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가라는 의문에 대해, 인구=수요의 증가 속도만큼 위와 같은 생계형 상인의 숫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제도와 규범이 불완전한 시장에서 위와 같이 조직되지 않은 생계형 상인들이 벌리는 무제한의 경쟁양상을 '난장'으로 규정한 바 있다. 요컨대 오늘날 세계 제일의 의류시장인 동대문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난장'인 셈이다. 어디 거기 뿐인가. 시장의 인프라가 제법 정비되어 있다는 자본시장을 들여다보아도 '난장'인 점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듯하고, 더구나 노동시장의 경우는 심하면 심했지 조금도 덜하지 않은 듯하다.

이 소식지의 편집자로부터 신임교수로서 인사말을 하라고 부탁을 받아 놓고서는 이렇게 '난장' 이야기로 마치게 되어 죄송스럽다. 필자의 전공인 '한국경제사'가 무엇을 공부하는 학문인지를 재미있게 전달하려다 보다 그렇게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한국경제사'란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알아듣고 재미있어 하고 또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경제학을 말한다.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n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경제학부 소/식/지
·교수인사말
·경제학부소식
·동문기고
·학부기고
·학부생기고

경제학부소식

학 부 행 사

1. 교무

1) 200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 일시: 2002. 8. 29(목)
- 장소: 문화관중강당
- 학부생(박준호 외 51명), 석사(서예린 외 8명) 박사(이근희, 김석진)

2) 2002학년도 사회과학대학 대학원생 우수논문상
- 김성수,「한국기업의 효율성, 생산성 및 투자지출에 대한 연구 : 재벌, 비재벌, 벤처, 비벤처 기업의 비교를 중심으로」, 2002.2
- 이근희, ?노동생산성의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2002.8

2. 학생

1) 2002학년도 2학기 교내 장학생 선정결과
- 학부(783명 중 263명 수혜), 대학원(117명 중 43명)

2) 2002학년도 2학기 향상장학금 수여식
- 일시: 2002. 8. 28(수) 11:00
- 장소: 프레스센터
- 장학생 : 학부생 15명

3) 2002학년도 2학기 일주 장학금 수여식
- 일시: 2002년 8월 8일 (목) 오전 10:00
- 장소: 태광그룹 흥국생명빌딩 대극장
- 장학생 : 박사과정 4명, 학부생 1명

3. 입시

1) 2002학년도 대학원 후기 모집
- 석사과정 15명 합격, 박사과정 4명 합격

2) 2003학년도 대학원 전기 모집
- 면접 : 11월 2일(토)
- 석사과정 67명(전문가 과정 32명, 연구자과정 35명) 합격, 박사과정 7명 합격

3) 2003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
- 비교과 영역 양적평가 : 10.17(목) ~ 19(토)
- 비교과 영역 질적평가 : 10.21(월) ~ 23(수)
- 면접 및 구술고사 : 11. 19(화)

4. 행사

1) 제3기 ASP 수료식
- 일시: 8. 23(금) 오후 6시 30분
- 장소: 근대법학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

2) 제10 회 SJE 국제 심포지엄
- 제목: 기업과 재벌의 사회경제적 역할
- 장소: 서울대학교 LG경영관 116호
- 일시: 2002년 8월 29일(목)

3) 김태성교수 기념 강좌
- 기간: 2002. 9. 16 ~ 9. 27(8일간) 오후 2시 ~ 4시
- 장소: 16동 655호(경제학부 세미나실)
- 교수: 윤용준(George Mason University)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n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Seoul Natonal University
News Letter : School of Econonic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School of Econonics SNU
제008 호 발간일 :2003 년 11 월 12 일

이제는 意識改革이다

韓國銀行 總裁
朴 昇

나는 1969년에 처음 뉴욕에 갔었는데 그때 길거리 공사장의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작은 하수도 공사였는데도 중장비가 동원되고 있었다. 또 일이 끝나자 공사장 인부들이 각자 자기 차를 타고 돌아가는 것이었다. 당시 해마다 보릿고개에 시달리던 우리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꿈만 같던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다. 요즘은 승용차 없는 집이 오히려 드물 정도이고 생활 주변에서 중장비가 쓰이는 일도 흔하다.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대형 TV와 냉장고가 있고 여성들은 먹는 것보다 살 빼는 데 더 관심을 쏟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어느 외국 인사는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것 같다.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도 했고, 미국처럼 근로자들도 승용차로 출퇴근하고, 먹고 입는 걱정도 없지만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외국 인사의 견해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회공공재(pubilc goods)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회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교통이 혼잡하고, 물이나 공기의 오염이 심하고, 휴식공간이 불충분하며, 의료와 교육 서비스의 질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풍족하면서도 생활환경이 아직 열악하고 생활의 질(quality of life)도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선진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식구조를 개혁하는 일이 중요하다. 경제개발은 정부주도에 의해 가능했지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일은 정부가 나서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 두 사람만 질서를 지키지 않더라도 사회 전체가 불편해지고, 몇몇 사람이 환경을 훼손하면 그 피해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힘만으로는 의료, 교통,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일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의식개혁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지혜를 터득하고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시민정신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는 원칙과 질서가 중시되는 그러한 사회기풍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욕쟁이가 된다고 한다. 얼마나 끼어들기가 심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지 알 수 있다. 반면에 어쩌다 외국에 가서 운전을 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서로 양보하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과거 압축성장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법과 편법을 저질러도 용인되던 그러한 후진적 사회분위기를 이제 일신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규범에 충실하고 남을 배려하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밝고 건강한 사회가 이룩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여야 한다. 공동체 의식이란 사회저축과 사회재산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도로, 항만, 비행장, 학교, 의료시설, 공원, 깨끗한 자연 등과 같은 사회재산을 충분히 생산?공급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회재산은 개별재와 달리 개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해결하기 어렵다. 사회재산은 개인저축보다는 세금, 사회보장기금, 기부금, 유산의 사회환원 그리고 사회봉사 등과 같은 사회저축의 축적을 통해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재산을 늘리는 데는 열심이지만 사회재산을 풍성하게 하는 데는 대부분 무관심하다. 상수원 오염은 생수로, 교육의 질 저하는 과외나 외국 유학으로, 휴식공간 부족은 해외여행으로, 양로시설 부족은 개인재산 축적이나 상속 등의 방식으로 나만 모면하면 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는 사회재산이 충분히 형성될 수 없고 따라서 선진사회의 실현도 기대하기 어렵다. 선진사회는 개개인의 재산축적은 충분치 않더라도 사회재산이 풍족해서 모두 풍요롭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의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의식과 이의 실천의지가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다. 개인재산을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기보다는 교육 및 사회사업 기부, 사회봉사 등 사회환원을 통해 사회전체의 후생과 복지를 증대시키는데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적 연고주의 가치관을 버리고 보편주의 가치관을 세워야 한다. 보편주의 가치관이란 사회전체의 이익을 최선의 가치로 추구하면서 그 속에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살아온 우리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학교 동문과 동향 사람들과 같이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지만 사회전체에 대한 관심은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도 객관적 사실이나 합리적 기준보다 연고관계가 우선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해서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 능률이 떨어지고 집단간 갈등의 골만 깊어져 사회통합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보편주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낡은 연고주의 가치관은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

우리는 불과 반세기만에 가난의 역사를 도약의 역사로 바꾸어 놓았다. 5년전 불어닥친 금융위기도 특유의 역동성을 발휘하여 슬기롭게 극복하는 저력을 보여 주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도전해야 할 과제는 선진사회로의 진입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구조를 개혁하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우리사회 전반에 새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할 때다. 지금까지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가치관과 소승적인 이기주의를 몰아내고 새롭고 개방화된 가치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야 하며 사회단체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의식개혁과 그 실천의지가 사회전반에 골고루 전파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도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부 소/식/지
·교수인사말
·경제학부소식
·동문기고
·학부기고
·학부생기고

변화와 바람

유원석 (경제학부 석사과정)

연구실의선배로부터이 글에 대한 기고를 제의 받을 때, 여 러 가지의 망설임이 앞섰다. 첫째 는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이제 금 맛을 보았을 뿐인데, 경제학 부의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는 글 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는 걱정이앞섰고, 둘 째는 내 자 신의 지식이 박약하다 는 것을 너 무 잘 알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이러한 종 류의 글을 써본 경험이 없다는 이었다. 그 럼에도 글을 쓰겠다고마음을 먹 은 것은 1년 동안 대원 생활을하면서 느 낀 점을 다 른 분들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 에서이다.

초등학교시절인가, 책상 위에 펼쳐진 공책 위에서 직이는 담 임 선생님의 빨간색 의 회전을바라보던 때가 기억난다. 선생님의 색연필 이 중심으로부터 동그 라미를 그려나간다. 기 억하기로 5개 정도의 그라미를 받으면 흡족했던 것 다. 이제는비슷한 동 그라미를 경제학 교과 서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동그라 미는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동그라미는 아 니다. 복잡한 방정식의균형을 구 하는 동그라미이다. 그 런데 이번에는 바깥쪽 에서 균형인 중심을 해서 동그 라미가 돌아간다. 공부 도 이 두 개의 동그라미로 설명 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한 가지에 대해서 오랜 간 열심히공부한 후 에 그 것을 바탕으로사회를 바 라보고 분석하고 해결 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관심을가지고 두 루두루 공부를 하다가문제를 인 식하고 이를 해결하기위해서 깊 숙하게 들어가는 길이 다.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것 아닐 것같다. 두 가지 방법을 상호 보적으로 활 용할 때 훌 륭한 연구가 나올 것같다. 두 방법은 나름대로의 약 점과 강점을 지니고 기 때문이 다. 경제학이 흥미롭고재미있다는순진한 생 각에 대학원 생활을 작정 시작 한 지도 벌 써 2학기가 다 되어간 다. 학부 때 막연하게생각하였던경제학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 게 다가오는 대학원의공부가 몸 과 마음을 많이 지치게 하였던 도 사실이 다. 세상살이에 쉬운 이 없다는것은 알고있지만, 스 스로 원하는 일을 하 있음에도힘들게만 느껴지고 도망가고 싶 다는 생각이 들 때는정말 답답 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게다가 학원에 관 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마음이 욱 무거워진다.

얼마 전 신문과 뉴 스 등 각종 언론에서국내 대학 원의 정원미달에 관한기사를 접 할 수 있었 다. 문제를 부각시키기위해서 편 향된 내용도 없지는 겠지만 국 내의 학위가 국내에서조차 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는 것이 현실이다. 학문의 본질 이야 어느 곳에서든 같은 것으로훌륭한 학 생이 좋은 학교로 간다는 것은 람직한 일 이다. 하지만 한국 국의 학생들 이 외국으로 나가서 위를 받아 야만 인정을 받을 수있다는 현 실은 한국의 학생으로 서 자존심이 상하는 이라는 생 각이 든다. 그리고 한 국의 특수성을 가지고접근해야 할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조차도 국내 대학 원이 비교우위를 상실 했다는 점을 생각해 면 뭔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마 저 든다. 이러한 배경 에는 외국 대학의 학위를 선호하 는 국내 대 학과 기업의 풍토가 장 큰 문 제일 것 것 이다. 그리고 국내 대원이 시대의 흐름에 변화하지 못하고 정체 되어 있었던 것은 아까라는 생 각도 조심스럽게 해 다.

이러한 때에 서울대 학교 경제학부 대학원 에서는 몇 가지 새로운 변화를 도하고 있 다. 그 하나는 새로운커리큘럼의도입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과의 변화 모색이다. 우선 새로운커리큘럼의도입은 기 존의 대학원 과정과 은 연구자과정과 실 무와 학문적인 성과를접목시키는전문가 과 정을 분리한 것이다. 롭게 개설 된 전문가 과정은 학교와 실무의격차를 줄 이면서 경제학부 대학 원의 새로운 가능성을보여 줄 수 있을 것 같다. 자의 연구 목표와 관련하여 대학 원에서 배우는 내용을달리 할 수 있다니 배우는 사람의 입장이 나 가르치시는 교수님입장에서나 모두 효율 적이고 유익한 과정이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
기존 과목의 변화 색과 관련 하여서는 올해 새롭게시도되고 있는 '응용-거시 계경제학 연 구'라는 제목의 수업은 매주 부의 관련연구자들이자신의 논 문을 발표하는 세미나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논문을 발 표하기에 앞서서 약 시간 가량논문에 관 련된 배경지식의 설명 이 앞서게 된다. 매주 다른 주제 들이 발표되기 때문에자기의 관심사와 비슷한 주제가발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신의 관심 사가 아니다 하더라도다른 사람 들이 어떤 토픽에 관하여 연구를하고 있는 지를 봄으로써 자신의관심영역을확대시켜 볼 수도 있 는 기회가 될 수도 있 다. 수업의 시간이 2시 간 정도로 제한되어 있고, 발표자분들은 수 강자의 수준에 대한 보가 불충 분한 상태로 발표를 비하시기 때문에, 수업 자체를 해서 각자 의 수준에 맞는 지식의 전달을 대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 지만 참가 인원이 많지 않은 관로 발표자 와 대화할 수 있는 기 회가 많으며, 향후 발자에게 자 신의 연구에 필요한 료를 요청 할 수 있는 기회를 공받을 수있다. 이러 한 형식의 수업은 앞으로 매년 속될 것이 라고 들었다. 이런 방의 수업의수준과 질 을 결정 짓 는 것은 대 학원생 분들의 참여에달려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 대원생 분들 의 참여가 활성화 될수록 세미나 의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세미나 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분 야의 유능한 연구자, 문가들이 초청될 가능성도 커질것이다. 우 리의 참여에 따라서 전의 방향 과 가능성은 무한할 같다.

변화를 모색하는 학 교의 노력과 학생들의변화를 위 한 참여와 열망이 합쳐져서 서울 대학교 경제학과 대학 원도 세계수준의 경제대학원으로발전할 수있을 것이 라고 생각한다. 이제 내에서 받 은 학위가 외국에서 받은 학위에밀려 국내 에서 찬밥신세를 당하 는 일은 없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대학원 교 육의 내실을 기함과 시에 대학 원 내부의 구성원 모두가 서울대 학교 경제학과가 세계수준의 경 제학 연구지로 자리매 김하기 위해 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n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Seoul Natonal University
News Letter : School of Econonic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School of Econonics SNU
제008 호 발간일 :2003 년 11 월 12 일

경제학부 소/식/지
·교수인사말
·경제학부소식
·동문기고
·학부기고
·학부생기고

경제학부 여학생들이 아쉬워하는 점

최자원 (경제학부 4학년)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귓불이 시리고 하얀 입김이 보이는 이맘 때가 되면, 한해를 보람있게 보냈다는 안도감이나 성취감보다는 지난 1년 간의 생활에서 미흡했던 점이 한보따리씩 먼저 떠오르게 마련이다. 더군다나 올해와 같은 경우는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이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쉬웠던 점은 내가 경제학부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것이었다.

여성이라는 사실이 아직은 사회에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고, minority로서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다는 현실을 처음으로 체험하게 해준 곳이 내가 4년 간 몸 담았던 이곳이었다. 경제학부는 전통적으로 남학생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과이고, 최근 들어서 여학생의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여학생들은 전체 정원의 1/3보다도 적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 과가 아무리 여학생들을 배려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너무 적어서 여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함이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과의 여학생들이 계속 이러한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다.

경제학부의 여학생 수가 너무나 적다는 데에서 파생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경제학부 여학생들에게 앞으로의 진로나 특히 여성으로서 겪을 수 밖에 없는 고민거리들에 대해 조언을 해줄 조언자가 거의 없다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주위를 둘러보면 친절한 남학생 선배들과 교수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여성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공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학생들의 경우 같은 해에 입학한 동기 남학생들에 비해 훨씬 빨리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1,2학년 때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다니다 보면 아직 그 흥분이 다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새 친구들은 거의 군대에 가 있고 당장 진로 선택 문제로 난감해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곤 한다. 이럴 때에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자 선배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그들 중에서 자신의 role model을 찾을 수 있었더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여학생 수가 적어서 여선배들의 층이 매우 얇고 그나마 여학생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선배들과 만날 기회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 남녀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학부생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장애물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자주 심하게 접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게 마련이다. 특히 사회에 나가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소수인 분야에서 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제학부 여학생들에게는 그중에서도 특히 어떤 분야에서 여성으로서 더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혹은 여성이라는 사실이 핸디캡으로 작용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충고해 줄 수 있는 선배들의 조언이 매우 절실하다.

또한 대학생인 지금에는 먼 훗날 일처럼 느껴져서 우선은 자아 실현에게 자리를 내주고 별로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경제학부 여학생들에게 앞으로 가장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가 될 결혼과 그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선각자들의 현명한 해결책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직장과 화목한 가정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생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여성들이 두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성취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행복의 두 가지 요소가 충돌하고 여성들이 어느 한 가지의 희생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여학생들이 이러한 점들을 아쉬워하면서도 해결해보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한 듯 싶다. 이와 같은 아쉬움들을 해결해 보려는 노력의 일부로 한 두해 전까지 재학생들 사이에서 선후배가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경제학부 여학우 모임'을 매년 열어왔었지만 요즘에는 그나마도 시들한 듯하다. 그리고 몇 해 전에는 과의 도움으로 각계로 진출한 여학생 선배들이 후배들을 만나는 행사가 열린 적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류근관 교수님께 듣기도 하였다. 물론 여성이기 때문에 넘어야 하는 장애물들을 쉽게 뛰어 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학부 출신의 여학생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장애물들의 높이과 개수를 줄이는 일도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n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